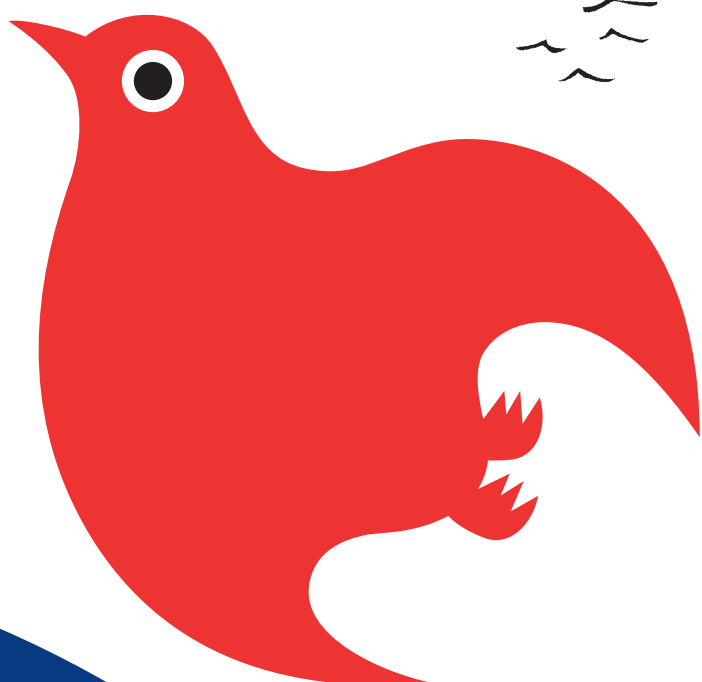


나가사키
메구리키

Nagasaki
Meguri

A Guidebook to Nagasaki





오ishi켄고

나
가
사
키
현
지
사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 혜택으로
관광자원이 풍부한 나가사키현.
수많은 섬을 보유한 나가사키는
전체 면적의 40%가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본 전국에서 두
번째로 긴 해안선을 자랑합니다.

일본 역사의 주요 무대였던
나가사키현에는 과거에서 현재,
나아가 미래로 계승되어야 할 두
개의 세계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철강, 조선 및 탄광'이고 두
번째는 '나가사키와 아마쿠사
지방의 잠복 기리시탄 관련
유산'입니다. 이 외에도 일본유산 제
1호로 지정된 '국경의 섬 이키·
쓰시마·고토', 새로운 세계 3대
야경으로 선정된 나가사키의 야경
등 나가사키는 헤아릴 수 없는
매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나가사키는 2022년 니시큐슈
신칸센이 개통되어 정차역 주변
지역에서는 새로운 지역 만들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업면에서도
로봇·IT, 반도체, 항공기 관련 등
새로운 기간산업화를 향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커다란
변화를 '100년에 한 번의 변혁'의
기회로 삼아 '새로운 나가사키현
만들기' '선택받는 나가사키현
만들기'를 위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책자를 통해 나가사키의
다양한 매력을 느껴보시기를 바라며,
나가사키에 방문해 주시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Nagasaki in Figures

●인구

인구/1,312,317명(국세 조사)
세대수/558,230가구(국세 조사)
(모두 2020년 10월 1일 현재)

●지형

해안선의 총길이 4,166km(해안 통계)
(2021년 3월 31일 현재)

●면적

총면적 4,130.98㎢
(전국 도도부현시정촌별 면적조)
(2021년 10월 1일 현재)

●섬의 수

유인도 72개
(2020년 국세조사에서 인구가 확인된 섬)
(2020년 10월 2일 현재)

Kengo Oishi, Governor of Nagasaki Prefecture

●나가사키현과 아시아 주요 도시와의 거리



목차



표지에 관하여

나가사키 전통놀이 '하타아게'. 실에
유리가루를 발라 상대방의 연줄을
자르는 놀이로 흰색, 빨간색, 파란색
바탕에 자연풍경과 새, 동물을
대담하게 도안화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나가사키 메구리』의
표지는 많은 연 디자인 중의 하나인
『과도 위의 새』를 모티브로
만들었습니다.

C o n t e n t s

03 나가사키의 역사는 해외와의 교류에 있다
The History of Nagasaki ❶

05 서양에 개방된 일본 유일의 창구 '테지마'
The History of Nagasaki ❷

07 나가사키의 은밀한 신앙의 증거
The History of Nagasaki ❸

11 일본 근대화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한 나가사키
The History of Nagasaki ❹

13 국경의 섬 이키·쓰시마·고토
Japan Heritage Sites in Nagasaki

15 빛의 도시 나가사키
The Scenery of Nagasaki ❶

17 개성 넘치는 나가사키의 축제
The Scenery of Nagasaki ❷

19 맛있는 음식들로 가득한 나가사키
Food in Nagasaki 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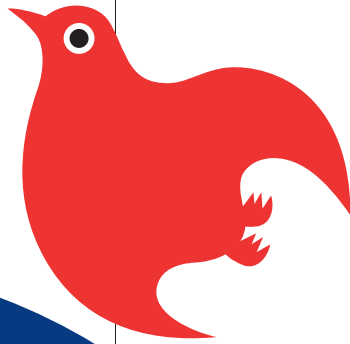
21 산해진미가 가득, 맛있는 나가사키
Food in Nagasaki ❷

23 나가사키의 도자기·전통수공예
Traditional Crafts in Nagasaki

25 나가사키의 주요 산업·앞으로의 성장 산업
Industries in Nagasak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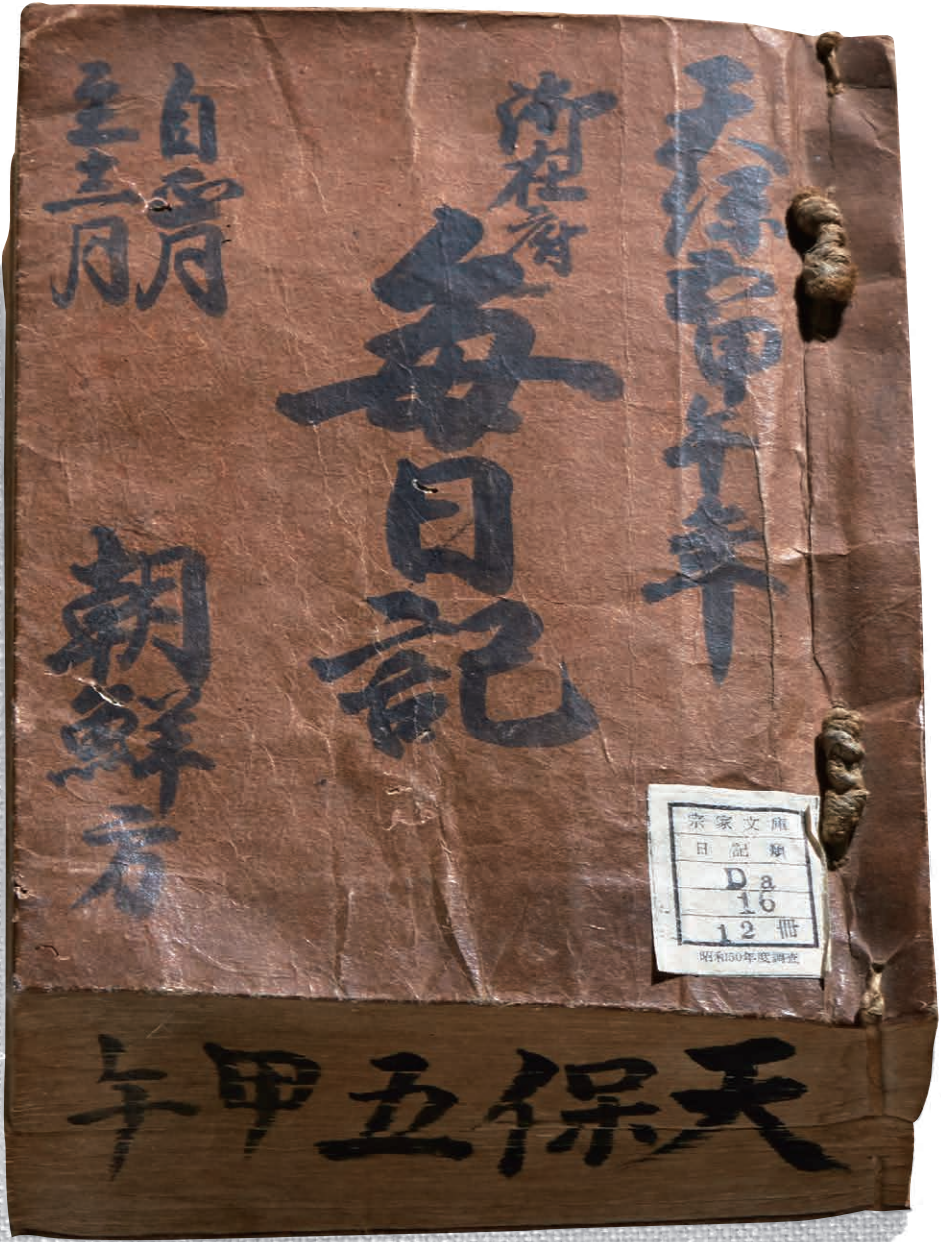
27 나가사키의 비전
A Vision for Nagasaki's Future

29 나가사키현 지역·교통지도
Nagasaki Area Access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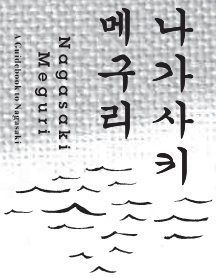


나가사키의 역사는 해외와의 교류에 있다

일본의 서쪽 끝에 위치한 나가사키현은 고대로부터 일본과 대륙의 가교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에도시대에는 일본에서 유일하게 서양에 개방되어 있던 창구로 이국의 문화를 수용하고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번영을 누려 왔습니다. 지금도 나가사키 도처에는 그러한 교류의 역사를 보여 주는 문화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The History of Nagasaki ① Cultural Exchange



●간에이 연간(1624~1644)부터 에도 막부 말기까지 약 240년에 걸쳐 조선과 일본의 교섭에서 중개 역할을 한 쓰시마번 소씨 일족의 변장사료. 에도시대, 조선과 일본의 외교기록인 소가문고사료 수는 약 8만 점에 이릅니다. (나가사키현 쓰시마역사연구센터 소장)



한반도와의 교류

나가사키현의 서쪽에 위치한 섬, 이키와 쓰시마. 고대로부터 한반도와의 교류가 왕성하여 대륙의 문화와 기술을 일본에 전해 주는 중계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키의 '하루노쓰지 유적'은 중국의 역사서 『위지』 「왜인전」에 등장하는 이키국의 왕도로, 야요이 시대(기원전 300년경~기원 300년경)의 환호취락 유적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선착장 유적을 비롯하여 대륙과의 교류가 왕성했던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많은 자료가 발굴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와 불과 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국경의 섬 쓰시마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으킨 임진왜란으로 중단되었던 조선통신사를 쓰시마번의 번주 소씨가 재개시키고, 에도(현 도쿄) 왕복 호위 임무를 맡는 등 조선과 일본의 외교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나가사키의 거리에는 중국문화의 향기가

600년경부터 대륙의 선진문화를 배우기 위해 일본이 파견한 건수사와 건당사는 이키와 쓰시마, 고토 열도 등을 경유하여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또한 가마쿠라 시대 말기 일본으로 쳐들어온 중국(원나라)의 수많은 배들이 '가미카제(神風)'라 불리는 폭풍우에 침몰된 역사적인 흔적을 마쓰우라시 다카시마 해저유적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도시대에는 중국과의 무역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또한 무역에 의한 문물뿐 아니라 교양과 학식이 뛰어난 중국인들이 도래하여 건축 기술과 그림, 음식문화 등도 전해졌습니다. 국보 건조물을 보유한 소호쿠지 절 등 황벽종(黃檗宗) 사원을 비롯하여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아치형 돌다리인 메가네바시, 화교가 직접 만든 일본의 유일한 공자묘 등 나가사키 변화가 곳곳에서 중국 문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페론 보트레이스와 쇼로나가시 등의 전통행사를 통해서도 중국과의 밀접한 관계를 보다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1. 하루노쓰지 유적의 서쪽에서 발굴된 선착장 유적을 모형으로 재현. 실물은 발굴 조사 종료 후 보존을 위해 다시 매장하였습니다.(이키시) 2. 일본에서도 오직 이키 섬에서만 발견된 하루노쓰지 유적의 인면석은 야요이시대에 종작을 기원할 때 사용한 조상신상으로 추정됩니다.(이키시립 이키코쿠 박물관 소장) 3. 조선통신사의 시작은 무로마치시대(1336~1573년). 일시적으로 단절되었지만 에도시대(1603~1867년)에 재개되어 그 후 약 200년 동안 300명 이상의 사절단이 12회에 걸쳐 일본을 방문하였습니다.(나가사키현 쓰시마역사연구센터 소장)



4. 원나라의 일본 침략/전투의 최전선이자 격전지였던 쓰시마와 이키, 다카시마 섬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희생되었습니다.(규슈대학 부속 도서관 소장) 5. 메가네바시 다리/일본 최초의 아치식 돌다리로 '니혼바시 다리' '긴타이로 다리'와 이계를 나란히 하는 일본3대 다리 중 하나. 수면 위에 비친 그림자가 두개의 원을 그리며 '안경(메가네)'처럼 보이는데서 붙은 이름이라고 합니다.(나가사키시) 6. 공자묘/원폭 피해를 입었지만, 전후 개수 공사를 거듭하여 1967년에 재건. 또한 1983년에는 중국 정부의 협력으로 중국으로부터 석상 등을 들여와 새로 개장하였습니다.(나가사키시) 7. 소후쿠지 절/1629년에 나가사키에 거주하던 중국 푸젠성 사람들이 건립. 나가사키의 국보 3점 가운데 2점이 소후쿠지 절에 있습니다.(나가사키시)



서양에 개방된 일본의 유일한 창구 '데지마'

일본과 세계를 이어주던
부채꼴 모양의 인공섬 데지마

1550년 히라도항에 들어온 포르투갈의 배와 함께 서양과 일본의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1636년에 축조된 '데지마'에는 그 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상관(商館)이 설치되고 이곳을 통해 최신 해외 정보와 서양 문물이 일본으로 유입되었습니다. 동시에 서양으로는 일본의 정보와 문물이 전해져 에도시대, 서양과 일본을 이어주는 유일한 창구로서 역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1823년, 데지마의 네덜란드 상관 의사로 부임한 시볼트는 나가사키 봉행소(판청)의 허가를 받아 진료소와 의학 교실을 겸한 '나루타키주쿠'를 개설하였습니다.

격변하는 일본의 대전환기
나가사키에는 중요 인물,
역사적 사건이 잇달아

페리 제독의 흑선 내항을 계기로 개항한 후, 에도막부는 1858년 시모다, 하코다테에 이어 나가사키를 포함한 4개의 항구를 개항하는 조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거류지를 설치하였습니다. 많은 외국인 상인이 거주할 수 있게 되자 1859년에 나가사키에 들어온 영국상인 글로버는 2년 뒤 오우라 지구에 상회를 설립. 막부와 각 번에 서구의 최신 문물을 소개하는 한편 탄광 경영, 선박 수리업 등에도 진출하여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말년에는 미쓰비시 그룹의 기틀을 다진 이와사키 야타로에게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1865년 나가사키에서 일본 최초의 상사로 알려진 가메야마사추를 결성한 사카모토 료마는 글로버에게서 사쓰마번 명의로 무기와 증기선을 사들인 후 막부와 대립하던 조슈번에 이를 되팔으로써 막부 타도의 원동력이 된 사츠 동맹의 계기를 이곳 나가사키에서 마련하게 됩니다.

The History of Nagasaki ②

Dejima & the End of the Edo Period



1. 간분 나가사키도 병풍(부분)/1673년 당시의 나가사키를 그린 것. 서양과의 유일한 창구였던 부채꼴 모양의 인공섬 '데지마'도 그려져 있습니다. (나가사키 역사문화 박물관 소장) 2. 사카모토 료마/물과 33년이라는 짧은 생애 속에서 근대 일본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한 막부 말기의 지사. 나가사키에서 최초의 거점인 된 지역 '가메야마'와 결사를 뜻하는 '사추'를 합쳐서 가메야마사추를 창설하였습니다.(나가사키 역사문화 박물관 소장)



3. 가이엔타이/해군과의 무역을 위해 결성한 사설 결사. 그 전신은 사카모토 료마가 나가사키에서 결성한 '가메야마사추'. 료마를 선두로 하여 글로버상회 등과의 거래에서 이익을 내고, 국가를 위해 동분서주하며 활약. 미쓰비시 그룹의 기틀을 다진 이와사키 야타로와 훗날 외무대신이 된 무쓰 무네타쓰 등의 인물도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4. 토머스 블레이크 글로버/막부 말기부터 메이지시대 초기에 나가사키에서 조선과 광업 등 폭넓은 사업을 전개하여 일본의 근대화에도 크게 공헌하였습니다.(나가사키 역사문화 박물관 소장) 5. 필립 프란츠 폰 시볼트/의학에 관한 뛰어난 기술과 지식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바탕으로 데지마 밖에서의 진료와 강의가 허락되었던 의사. 일본인 부인, 딸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렸지만 일본 외 반출이 금지된 자료가 발각되어 국외로 추방되었습니다. (나가사키 역사문화 박물관 소장)